

간절한 희망으로 기적을 만듭시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슴을 어이해야 할지 참담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한 순간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뜻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잠시 교실 밖으로 나가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을 배우는 꿈에 부푼 수학여행 길이었습니다. 60평생을 함께 우정을 나눈 동창생들과의 행복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린 남매를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가슴 가득히 희망과 푸른 꿈을 담고 떠난 여행길이었습니다. 서해의 푸른 바다를 건너며 그들은 가슴마다 더 큰 꿈을 키우고 희망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은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많은 생명들이 한 걸음도 나가지도 못하고 차갑고 어두운 바닷물에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끝내 생명의 끈을 놓아야 했던 어린 희생자들에게 국민 모두는 너무나 미안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은 실종자들의 조속한 무사귀환을 가슴 깊이 기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에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두운 물 속 어디에선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굽어 살피주시옵소서!

아픔에 마주한 우리는 이 시대를 함께하는 동업중생입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서 지혜를 모아 화합하고 모든 역량으로 실종자들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안타까운 생명을 광명으로 이끌 수 있고, 화합의 상생의 길을 열어, 아픔을 함께하며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존학생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도와야 합니다. 모두 한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 용기를 내 주십시오. 희망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부처님 전에, 2천만 불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모든 생명이 광명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구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전국 각처에서 자진하여 참여하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